

# 전도를 위해 눈물, 땀, 피를 흘린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복음 -복음으로 여는 예레미야-

예레미야:5, 데살로니기전서5:9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죄에 빠져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이제 237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 수준, 표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237 나라 살리는 그러한 전도와 선교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과 후대가 모든 분야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정복하는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해 주셨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영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씻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강단메시지,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강단메시지를 붙잡는 사람은 응답받고 승리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위기를 못 넘어선다. 그래서 렘넌트 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강단메시지를 잘 따르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영적인 일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까지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증거한 눈물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이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모습이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눈물과 땀과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리스도인은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청교도정신이다. 모든 선한 것은 눈물과 땀과 피(생명과 노력)를 흘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예레미야의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렸던 이유와 이러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적인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한다.

## 1.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과 땀과 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눈물을 흘렸다. 예레미야 1장 6절이다. ‘내가 이르

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외에도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예레미야의 눈물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다.

① 예레미야는 멸망당할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었다.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겠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리다’ 나라와 민족, 후대, 미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를 위해서 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셔야 한다.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 의하여 정복당한 현장과 가정 가문과 후대를 위해서 주야로 울어야 하겠다. 한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표가 있어야 한다.

② 다음으로는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생각하며 통곡하였다. 예레미야 13장 17절이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와 양 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사로잡혔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뜻인데, 지금 전 세계에는 12가지 문제로 노예, 포로, 속국이 된 237, 5천 종족이 있다.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선교의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란다.

③ 또 예레미야 14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파멸하고 멸망할 것을 알고 울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지금 망할 것이 확실히 보이는 사람들이 현장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치유하고, 빛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지교회이고 다락방이다. 현장에서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눈물을 흘린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때 그는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과 생명을 사랑한 전도자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다.

(2)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 왕들과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의 땀을 흘렸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심지어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심하게 핍박하였을 뿐 아니라 예레미야가 쓴 예언의 말씀을 불사르기까지 하였다.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다. ‘그 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먼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예레미야는 5명의 왕들에게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의 땀을 흘렸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는 대부분 헛수고처럼 보였다. 그런데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복음의 역사 속에서 6가지 도구의 역할을 하였다. 6가지 도구 LVTINPO 는 Leverage(지렛대), Vessel(그릇), Transmission(전달), Nobody(Masterpiece, 인생을 걸작으로 만듦), Platform(유대역사의 플랫폼 역할), Outsourcing(포로시대 제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위탁)이다. 모든 성도들도 교회 안과 세상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란다.

(3)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회개할 것을 권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시드기야 왕은 결국 눈이 뽑힌 상태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 이 사실은 정말로 예레미야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슬픈 상황이었다. 예레미야 5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낫시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왕으로 있을 때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안 듣고 오히려 심하게 핍박을 하였다.

① 예레미야 37 장 16 절에서 17 절을 보면, 뚜껑 씌운 옹덩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집어넣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옹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② 또한 감옥 뜰에 두고 하루에 떡 한 개만 주었다. 예레미야 37 장 21 절에 보면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여호야긴(19 대 왕)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38년 동안 감옥에 살았다. 이 모든 상황은 예레미야가 피눈물을 흘릴 만큼 한스러운 일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과 귀신을 숭배한 개인, 가문과 민족은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꼭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이러한 것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이 저주를 끊어야 한다. 거듭나서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 2.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테에 짓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이것이 구원이고 은혜이며 성경적인 전도캠프의 방법이다. 예레미야 1 장 5 절이다. '내가 너를 모테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캠프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300 영접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 30 다락방과 3 지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하겠다.

(2)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예레미야서 5 장 1 절 말씀을 보겠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 10 명을 요구하셨다. 그러나 예레미야 당시에는 의인 단 한 명을 요구하셨다. 그러나 이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다. 예레미야 자신도 훌륭했지만 의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참된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해결해주셨다.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복음을 이르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디도처럼 문제를 대신 해결할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이다.

(3) 신앙생활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길을 확실하게 출발할 수 없다. 예레미야 10 장 12 절에서 13 절 말씀을 보겠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예레미야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다.

(4)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눈물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주셨다.

예레미야 31 장 16 절을 보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 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샅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어주실 것이다. 여호와와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강단메시지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기준이요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고 걱정,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붙잡으니까 염려, 불안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까지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5)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예레미야 33 장 2 절에서 3 절 말씀을 보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램넛트 영적 양육의 끝은 혼자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란다. 응답이 다르다. 한을 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세심한 부분을 두고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 보라. 기도의 맛을 체험해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를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결론으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CVDIP 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불신앙과 실수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같은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 인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작은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야 하겠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237 나라, 5 천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타락한 현장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24 시간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릴 정도로 기도하면서 수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엄청난 민족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미래를 보았던 것처럼 미리 보고, 미리 찾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할 줄 믿는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리고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인지를 기록해보기를 바란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RUTC 와 237 치유서밋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시사 영세 전에 선택하셔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오력의 축복을 더해주시어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